

## 포스트모던 시대 속 리차드 니버의 윤리사상 다시 읽기

박우영 (감리교신학대학교)

- I. 들어가는 말: 포스트모던 시대 속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질문들
- II. 삼각적 상호 관계성과 상호보완이론에 근거한 상호연관성
- III. 절대적 타자이며 급진적 비판자로서의 하나님 이해
- IV. 해석의 능력과 다양한 이야기들의 중요성
- V. 신 중심적 사고와 종교 다원적 상황
- VI. 나가는 말: 책임 있는 해석을 통한 지속적인 자기 비판과 자기 교정

DOI: <http://dx.doi.org/10.21050/CSE.2016.35.06>

---

• ABSTRACT •

---

## A Re-reading of H. Richard Niebuhr's Ethical Thoughts in the Era of Postmodernism

Park, WooYoung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How can we understand and explain not only Christians as social existences but human beings as moral agents by using both Christian theological structures and moral philosophical traditions in this postmodern world? To answer this question, we need to revisit H. Richard Niebuhr's ethical thoughts because his understanding of God as the Absolute Being by which all beings exist leads us to grasp close relations between the self and others on which prevalent postmodern thoughts can be converged. Further, Niebuhr's ethical thoughts could be re-interpreted as a possibility of having a continual dialogue with postmodern thoughts and providing them with constructively critical focal points in the following: 1) his ethical thoughts can reexamine a complementary theory in terms of responsible responses, 2) radical monotheism is the principle of being itself and rather supports a more inclusive community; while postmodernism affirms various voices, Niebuhr considers them as a whole with relativizing all the practices of social existences in the light of the relation to God as the ultimate cause and the Absolute being, 3) revelation itself is meaningful and further makes us interpret others' stories as valuable and meaningful ones in history, and 4) his God-centered thoughts are based on God's free and arbitrary actions in history, on which a dialogue with other religions could be carried out. To make his ethical thoughts valid in the midst of a harsh postmodern society, continual self-critical and self-corrective movements should be performed through responsible interpretations by which fitted actions can be followed.

**Key words:** Postmodernism, H. Richard Niebuhr, Responsible Interpretation, God-centered Thought, Interconnectedness, Radical Monotheism

---

## I. 들어가는 말: 포스트모던 시대 속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질문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의 사회적 실존을 이해하고 적합하게 설명하는 일은 어떻게 그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기독교인의 고유한 정체성뿐만 아니라, 사회와의 적합한 관계성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질문들에 관한 답변이 기계적으로 교리화된 설명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과연 어떻게 교회 밖 사회 구성원들에게도 공유되어지고 이해되어질 수 있는 하나의 대안적 길은 어디에 있을까? 기독교인의 사회적 실존뿐만 아니라, 인간의 도덕적 주체로서의 실존은 기독교 신학의 체계와 더불어 도덕 철학의 전통에서 사실상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에 관하여 끊임없이 답변을 시도했던 기독교윤리학자 중 한 명이 바로 리처드 니버(H. Richard Niebuhr)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니버에게 다시금 관심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가 전통적 철학의 이해와 기독교 신학적 윤리학적 이해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고민해 왔기 때문이다. 즉 인간의 도덕적 삶을 기독교적 시각으로부터 철학적 방법론을 통해 이해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해 왔다는 점이다.<sup>1)</sup>

니버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관한 의무론적 윤리 규범에 편중되게 관심하지도 않았고, 또한 무엇이 선하고 행복한지에 관한 목적론적 관점에만 초점을 맞추지도 않았다. 하나의 윤리적 체계를 확립하려는 시도보다 오히려 그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 사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관하여 언제나 관심하였다.<sup>2)</sup> 그렇기에 그의 윤리 사상의 출발점은 기독교

---

1) H. Richard Niebuhr, *The Responsible Self: An Essay in Christian Moral Philosophy*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63), 42-43.

2) 위의 책, 65.

인의 정체성을 배타적으로 설명하려는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기독교인의 구체적 삶과 그 삶이 놓여 있는 사회 가운데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하게 묘사하고 파악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인 삶의 현실을 묘사하기 위해서 니버는 사회 속 기독교인의 실존을 단지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또한 타자들 앞에서 설명하려고 노력한다. 그의 이 같은 노력은 우리를 존재 가능하게 만든 절대 타자로서의 하나님과 사회적 자아로서의 인간 존재 사이의 관계성 이해를 전제로 이루어진다.

포스트모던 시대 수많은 변화 가운데서 큰 특징을 하나 꼽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what we believe) 라는 질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는가”(how we believe) 라는 질문으로 관심이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sup>3)</sup> 종교에 관해서도 시대를 초월하는 실재에 대한 관심보다는 문화적 산물로서 이해되기도 하는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것이다. 리차드 니버의 사상이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이해로부터 시작된다면, 그의 사상이 소위 포스트모던 시대라고 불리는 현 사회상<sup>4)</sup>을 이해하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유효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는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니버의 윤리사상은 어떻게 이 사회의 매우 복잡적이고, 다원적이며, 다양한 특성들을 새롭게 설명해 내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서구 근대성의 전통으로부터 야기된 수많은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는 구체적 사회구

3) Walter T. Anderson, ed., *The Truth about the Truth: De-confusing and Re-constructing the Postmodern World* (New York: Penguin Putnam, 1995), 2.

4) 박충구, 『한국사회와 기독교윤리』 (서울: 성서연구사, 1995), 199-204.

포스트모던 시대에 드러나는 삶의 태도와 사상적 특징은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요약될 수 있다. 1) 계몽주의 이후 이성이 약속한 해방과 자유와 번영신화, 그 거대이론을 해체하거나 비판하려는 특징, 2) 거대이론이 초래한 소외와 지배에 대한 거절과 문제제기, 3) 지배와 획일을 거절하고 서로 다름을 존중하는 다중심적 문화, 4) 관용의 덕, 개방성, 상호성, 그리고 공존과 상생의 윤리의 강화, 5) 전통적 가치와 질서에 대한 해체적 성향은 현실주의적 논리를 거절하는 전위적 기질을 선호, 6) 기존의 주어진 것을 비판하고 해체하면서 지식의 정당성을 직관, 상호모순성, 역설적 이해 등에서 추구하는 경향성을 드러낸다.

성원들의 삶에 관해 하나의 대안적 해석의 관점들을 제공해 줄 수 있을까? 니버의 사상은 언제나 두 가지 주요한 양극적 특성들에 기초하고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하나는 신학적 측면으로서 철저한 유일신론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공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이해이다. 니버가 이 양극적 특성들 사이에서 어떻게 그 긴장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포스트모던 시대 속에서 니버가 추구하는 이 양극성의 균형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으며, 이것이 하나의 대안적 패러다임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려고 한다. 니버의 윤리적 사상이 포스트모던 시대의 사상들과 어떤 지점에서 대화 가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포스트모던 사상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 때문은 아니다. 오히려 포스트모던 사상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제기에 관심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대화의 지점들이 포스트모던 사회 속 경험하는 현실 문제들에 대한 전적인 해답이 다 될 수는 없겠지만, 사회 속 관계들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관계 재설정의 열린 첫 걸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질문해 본다.

## II. 삼각적 상호 관계성과 상호보완이론에 근거한 상호연관성

데카르트(René Descartes)가 사고하는 주체와 사고의 대상으로서의 객체를 명확하게 구분해 온 이래로, 그의 사고의 틀은 서구의 사상과 지식의 개념을 지배해 왔다. 이러한 사고의 틀이 이성적이며 과학적 사고, 즉 서구 근대성을 발전시키는 일에 하나의 기초가 되어왔다고는 하지만, 주체의 객체에 대한 착취를 정당화하고 지지하는 일에도 주요한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심각한 생태적 위기를 초래한 인간의 자연에 대한 착취 또한 자연을 극단적으로 대상화하여 바라보게 한 도구적 효율성을 중시한 근대적 세계관이라 할 수 있다.<sup>5)</sup>

포스트모던 시대 ‘상호보완이론’(complementary theory)을 주장하는 닐스 보르(Niels Bohr) 같은 사람들은 “데카르트의 구분에 근거한 인식론적 원칙<sup>6)</sup>을 비판하는데, 그 이유는 주체와 객체의 엄격한 구분 자체가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든다면, 과학적 실험은 언제나 주체와 객체의 구분을 통해 엄격히 중립적인 것 같지만, 과학자의 실험 의도는 결코 가치중립적이지 않다: “... 관찰의 방법을 선택해야 할 때, 과학자들은 언제나 관찰되어야 할 실재를 준비하고 있다.”<sup>7)</sup> 그러므로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 가운데 완벽한 객체성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오로지 ‘간주체성’(inter-subjectivity)만이 존재한다. 간주체성이란 나는 너와의 관계 그 자체라는 말이며<sup>8)</sup>, 나는 너와의 관계에서 분리된 채로 결코 설명되어 질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를 가진다. 라스무센(Larry L. Rasmussen)에 따르면, 나라는 존재는 타자와 분리된 채 독립되어있는 자기중심적, 자기의 식적 실체가 아니며, 모든 타자들에 앞서서 이미 존재하는 실체가 결코

5) 근대의 ‘자연’ 개념은 데카르트가 실체를 ‘연장하는 것’(res extensa)과 ‘생각하는 것’(res cogitans)으로 구분함으로써, 심지어는 자연으로서의 속성을 지닌 인간의 육체까지도 연장하는 실체로 여기는 지점에까지 나아간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인간의 육체는 영혼이나 정신에 비해 하등하며, 육체적 감각이나, 정서, 욕구는 이성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게 되었다. 모든 자연은 수동적이고, 비어있는 대상으로 여겨져서 그 본래적 가치가 쉽게 부정되어 왔다. 그로 인해 자연은 얼마든지 착취할 수 있으며, 인간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조정되고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는 대상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게 되었다. 이처럼 주체와 객체를 엄밀히 구분하는 데카르트의 이원론적 사고와 자연을 연장적 존재로 바라보는 기계론적 세계관은 효율적인 이윤추구 중심의 가치관과 생존 경쟁의 원리 및 공리주의에 기반을 둔 사회적 다윈주의를 낳게 되었다. 결국 상호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 상생보다는 지배와 착취 그리고 정복의 구조를 정당화하게 되었다. 위의 내용과 연관해서는 구승희, 『에코필로소피』 (서울: 새길, 1995), 30 이하를 참고하라.

6) Wolfgang Gunter, “Postmodernism,” *International Review of Mission* 86, no.343, 1997: 425.

7) 위의 책, 426.

8) Judith Butler, 양효실 역, 『윤리적 폭력비판: 자기 자신을 설명하기』 (고양: 인간사랑, 2013), 142.

아니다. 나는 “바로 그 나에게 영향을 미치며 생동하는 그 관계성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변화되어지는 존재”<sup>9)</sup>일 뿐이다.

간주체성에 관한 이와 같은 강조는 세계 내 모든 존재들의 상호연관성에 관한 이해와 맞닿을 수 있을 것이다. 상호보완이론은 포스트모던 시대의 사람들로 하여금 타자의 존재의 중요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도울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이론이 각각의 인간 존재 뿐 아니라 다른 존재들이 각각 분리된 채로가 아니라, 하나의 유기적인 전체로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설명하기 때문이다. 간주체성과 상호연관성에 관한 관심은 하나의 전체 공동체 안에서 인간 실존에 관한 관계적 이해를 강조하며, 이를 통해서 오히려 이분법적 인간 이해, 즉 억압자와 피억압자, 권력의 중심부에 있는 자와 주변부에 있는 자,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라는 차별적이며 양극적 분리의 구조 가운데서 인간을 이해하는 것을 지양한다. 그 이유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relatedness)에 관한 깊은 이해는 위계적 우월성에 기초한 일방적 관계를 넘어서서 “상호의존적인 정의를 지향하는 삶의 개방성으로 길을 열어주고, 일상적 삶과 제도적 삶 사이에서 경험하는 괴리에 매몰되지 않고 삶의 균형을 이루어가도록”<sup>10)</sup> 하는데 근거와 토대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간주체성과 상호연관성에 관한 초점은 니버가 강조한 자아, 타자, 그리고 하나님이란 ‘삼각적 관계구조’(triadic relation)와 접점을 찾을 수 있다. 니버에게 있어서, 자아와 타자 그리고 하나님과의 삼각적 관계가 없이는 홀로 분리된 자아가 되어 존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한 인간은 오로지 사회적 관계 안에서만 진정한 자아가 될 수

---

9) Bruce C. Birch and Larry L. Rasmussen, *Bible Ethics in the Christian Life* (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1989), 69.

10) Ivone Gebara, *Out of Depths: Womens' Experience of Evil and Salvation*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2), 143.

있음을 그가 강조한 것이다.

다른 자아들의 현존 가운데 한 자아가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을 본뜬 경험이 아니고, 원래적인 경험이다. 나는 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생각한다 는 서술로부터 추론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고, 내가 법을 인정하는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서술로부터 추론해서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의 실존을 다른 자아의 상대자로서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11)</sup>

니버에게 있어서 사회는 사회적 제도들이나 구조들이라는 공간적 개념이 아니고 책임적 자아들 사이의 관계성이라는 개념이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성은 자아들 사이의 지속적 상호작용을 가지고 있다. 자아와 다른 자아들과의 관계성에 관한 니버의 초점은 모든 존재들이 하나의 전체로서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속하며, 그 모든 존재들은 상호 도움의 관계에 놓이게 된다는 상호보완이론의 이해와 연결된다.

그러나 니버는 응답이라는 관점에서 인간 삶의 삼각적 관계를 간과하지 않는다. 그에게 사회적 관계성은 초월적 실재일 뿐만 아니라 제 삼의 인격으로서의 하나님에 근본적으로 기초하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자아 사이의 관계성은 자아로 하여금 타자들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상호보완이론과는 달리, 니버에게 있어서, 자아들 사이의 관계성은 언제나 자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하며, 또한 그 관계에 의해 재점검되고 비판되어진다.<sup>12)</sup> 상호적 관계를 비판할 수 있는 이

11) Niebuhr, *The Responsible Self*, 71.

12) 물론 삼각적 관계에 놓인 인간이 언제나 자신이 처한 관계들을 재점검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질문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 속에 내재된 이기적 속성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며, 집단적 이기성과 역사 속에 드러나는 악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니버가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책임적 존재라는 단순한 등식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책임적 존재의 자리로 역사 속에서 부름 받았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한 가지 구분해야 하는 것은 책임적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제도화된 사회 가운데서 발생할 수 있는 왜곡된 관계성들을 우리로 하여금 폭로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판력이 어떻게 이미 확립된 제도와 지배적 관계성들을 해체하고 파괴하는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인가?

### III. 절대적 타자이며 급진적 비판자로서의 하나님 이해

엠마누엘 레비나스(Emmanuel Levinas)는 타자들에게 구체적으로 근접해 가는 사건 속에 진리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에게 있어서 진리란 인간 주체의 타자에 대한 사랑에 의해서만 표현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Here I am Lord)라는 문구는 구약성서의 광은 곳에서 쉽게 발견되어 질 수 있고, 그 의미는 인간 주체가 절대 타자로서의 하나님에게 마음을 열어 응답한다는 것이다. ‘응답과 관계’라는 바로 이 지점으로부터 진리는 실제로 존재하기 시작한다.<sup>13)</sup> 다시 말해서 절대 존재로서의 하나님은 결코 데카르트 식의 엄격한 주객의 분리 구도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는 존재가 아니며, 하나의 특별한 응답의 구조, 즉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와 같은 응답에 의해 입증될 수 있는 존재이다.

레비나스에게 있어서 진리란 단지 지식만이 아니라 행위와도 연관이 된다. 진리에 대한 이와 같은 이해는 사람이 진리에 도달하는 유일한 길

---

자아로 부름 받은 사회적 실존이 놓인 지점이 바로 하나님과 타자와의 관계성 가운데라는 사실이 사회적 악의 현실로 인해 단순히 부정될 수 없다는 점이다. 사회적 현실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읽어내고 비판적으로 해석해 낼 능력에 대한 니버의 관심은 이제 보다 적합한 책임적 행위와 연대성의 가능성으로 나아간다. 바로 이 사회적 연대성, 더 나아가 우주적 연대성에 놓인 책임적 자아로서의 인간은 연대적 관계성 속에서 자기비판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평가해 본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 삶의 가치가 보다 열린 상호적 관계성에 놓여질 때 보다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이다.

13) Emmanuel Levinas, *Otherwise Than Being or Beyond Essence*, trans. Alphonso Lingis (Hingham, M.A.: Kluwer Boston, 1981), 149-152.

은 어떠한 추상적 인식론적 원칙을 통해서가 아니라, 타자에 대한 책임을 감당함을 통해서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레비나스의 이해를 따라가다 보면, 타자들은 이제 더 이상 단지 객체들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 현실 가운데서 진리를 실천함으로써 보다 더 적절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타자들이 수동적 객체로서 대상으로 그저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일하는 적극적인 도덕적 주체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책임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타자와의 관계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갖게 될 때, 우리 자신들은 타자들을 우리들과 일방적으로 동일시하여 이해하고자 했던 욕구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sup>14)</sup> 왜냐하면 레비나스가 말하듯이 이러한 동일시의 시도가 서구 사회에서 인간들을 억눌렀던 ‘전체주의’(totalitarianism)의 토대가 되어왔었기 때문이다. 전체주의의 위험한 경향성을 피하기 위해서, 레비나스는 ‘무한성’(Infinity)의 개념을 가져오는데 이 개념은 니버의 제 삼자로서 하나님 또는 절대 원인으로서의 하나님 이해와 통할 수 있는 부분이다. 우리와 무한과의 관계는 우리로 하여금 억압받는 자들을 해방하는 것과 같은 우리 자신이 가장 선하다고 여길 수 있는 프로그램조차도 상대화하여 바라보고 비판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바로 무한은 타자들과 긴밀히 연관된 인간의 다양한 행위들을 평가하는 급진적 기준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레비나스의 이해의 틀은 니버의 ‘철저한 유일신론’(radical monotheism)과 삼각적 관계 이해에서도 잘 드러나며, 니버 사상의 이 양극적 특성들은 긴밀히 연결되며 균형을 이루고 있다:

14) 근대적 자아는 대상으로서의 너의 이야기, 너의 서사구조를 완벽하게 설명해 낼 수 있다는 신화의 구조 가운데 빠져든다. 타자의 이야기를 주체로서의 근대적 자아가 설명할 수 있다는 태도 자체가 매우 폭력적인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근대적 자아 자신도 타자와의 관계 안에서만 설명되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지 못할 때, 근대적 자아로서의 나 역시 왜곡된 자아 이해 가운데서 헤어 나올 수 없게 된다.

유일신론을 믿는 자 - 그에게 있어서는 그의 동료들에 대한 모든 응답들이 궁극적인 인격으로서의 하나님, 궁극적 원인으로서의 하나님, 보편적 공동체의 중심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그의 응답들과 서로 연결되어지고 있는. 에게는, 자기 판단과 자기 안내와 같은 하나의 운동을 하는 인간의 응답적이고 책무적인 삶 전체 속에서 조짐들이 보이는 것 같다. 그 흐름은 그것이 하나의 보편적 타자와 하나의 보편적 공동체와 연관을 맺을 때까지 결코 그칠 수 없는 것이다.<sup>15)</sup>

삼각적 관계에 근거한 철저한 유일신론으로부터, 사회적 자아는 타자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 비판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타자들과의 삶에 있어서 자신이 중심에 위치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에 대해 비판적 힘으로서 파괴력을 가진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은 궁극적 원인으로서의 하나님 또는 무한으로서의 하나님에 의해 상대화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판력은 인간의 아무리 선한 행위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행하심과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니버의 주장으로부터 생겨난다: “기독교적 행위는 하나의 보통의 목적을 추구하며 공동으로 애쓰는 노력에 있어서 신적 행위와 병렬적인 것으로는 이해되어질 수 없고,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반대적 행위로서 이해되어질 수도 없다. 오히려 역사 속에서 인간의 행위를 앞서 가고, 함께 가고, 그리고 기다리는 신적 행위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해되어질 수 있다.”<sup>16)</sup> 다시 말해서 이러한 분별은 우리 자신을 절대 존재로 동일시하게 하는 유혹, 즉 자기권력 강화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준다.

니버에게 있어서, 철저한 유일신론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며 창조주이

---

15) Niebuhr, *The Responsible Self*, 86-87.

16) H. Richard Niebuhr, “The Kingdom of God and Eschatology in the Social Gospel and in Barthianism,” In *Theology, History, and Culture*, ed. William Stacy Johnson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1996), 121.

신 하나님이 또한 구원자 또는 가치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철저한 유일신론에 있어서 가치의 중심은 닫힌 사회가 아니며 그러한 사회의 원칙도 아니다. 오히려 존재 그 자체의 원칙이다. 존재는 그저 많은 것들 중에서 어떤 하나의 실재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많은 모든 것들을 넘어서 존재하는 유일한 한 분께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존재하는 것이라면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존재하는 것은 유일하신 한 분, -가치의 원칙이 또한 되시는 존재의 원칙, 그 분 안에서 그것의 기원과 그것의 존재를 가지는 많은 것들 중의 하나로서 존재하기 때문이다.<sup>17)</sup>

철저한 유일신론을 믿는 자들의 공동체는 결코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사회가 아니고, 오히려 모든 존재에 대해 전반적이며 포괄적인 공동체이다: “철저한 유일신론자들은 평등을 주장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가치의 보편적인 하나의 중심과 동등하게 관계되어 있기 때문이다.”<sup>18)</sup> 그러므로 철저한 유일신론은 절대 타자로서의 하나님과 자아와의 관계성 이해가 인간들을 억압하는 다양한 기제들에 대한 급진적인 해체/비판의 힘이 될 뿐만 아니라, 포스트모던 시대 속에서 다양하고 가치 있는 목소리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일에 있어서 구성적인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지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절대 타자로서의 하나님에 근거한 인간 사회의 관계적 구조를 니버가 강조하고 있는 점은, 어떤 것이라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상대주의적 입장에 대해 하나의 대안적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이 말하는 다양한 목소리와 이야기들 각각의 가치를 모두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17) H. Richard Niebuhr, *Radical Monotheism and Western Culture*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60), 32.

18) Douglas F. Ottati, “God and Ourselves: The Witness of H. Richard Niebuhr,” *Christian Century* (2 April 1997), 347.

니버가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근거한 인간 사회를 위한 윤리적 실천들은 그 역할과 의미가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되고 점검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각각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것과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실제적으로 평가하는 것과는 구별되어질 수 있다. 모든 다양한 목소리들이 각각 의미를 가진다고 인정할지라도, 다양하고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함께 만나게 될 때는 서로 다른 모양은 두드러지지만 함께 엮어진 퀘트와도 같은 유기적 조화와 연합을 바라보게 된다. 니버는 전체주의적 측면에서의 하나의 획일적 통일이 아니라 관계성에 근거하여서 공동체적 측면에서 하나의 유기적 통일과 조화를 추구하는 사고를 이어나가고 있다.

#### IV. 해석의 능력과 다양한 이야기들의 중요성

계몽주의 운동 이래로 이성의 힘에 의지한 인간 중심적 사고들은 전체주의와 같은 하나의 거대한 이데올로기처럼 하나의 거대담론을 형성해 내는데 주요한 역할을 해 왔고, 이는 대부분의 포스트모던 사상가들이 동의할 수 있는 사실일 것이다.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의 거대담론은 언제나 중심부에 위치한 거대담론 주변부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경향성을 띤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주변부에 위치한 소외된 이들의 삶과 그들의 희생을 더 나은 사회를 위하여 당연하고 자연스런 것으로 여기도록 만든다. 이데올로기로서 거대담론의 논리구조는 롤랑 바르뜨(Roland Barthes)의 신화 이해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데올로기는 사회의 객관적 입장에 대한 사회의 주관적 표현이라고 사람들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은 '그 객관적 실재를 도치시키는 방법에 의해서 특징지어진다... 이데올로기에 의해 수행되는 가장 근본적인 도치는 문화를 자연의 자리로, 역사적인 것을 영원한 것의 자리로 도치시

키는 것이다.<sup>19)</sup>

다시 말해서 이데올로기로서 거대담론은 사회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왜곡된 사회의 관계성을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또한 필연적인 것으로 여기도록 작동한다. 예를 들어 관용 담론 안에 내재된 권력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 웬디 브라운(Wendy Brown)에 의하면, 관용이 일어나는 지점은 보편적인 것이 특수한 것을 관용하는 문제로 드러나는데, 이 대목에서 “보편의 지위를 차지한 것은 언제나 특수한 것보다 우월한 것으로 간주”<sup>20)</sup>된다.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점은 특수한 것은 결코 보편적인 것을 관용할 수 없다는 힘의 불균형이란 논리가 내재한다는 점이고, 여기서 이데올로기로서의 관용 담론은 권력의 내재성을 희석시키거나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게 만든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포스트모던 사회 가운데서 살아가는 구성원들은 왜곡된 사회적 관계성들을 재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권력 중심부 밖 주변부의 많은 이야기들의 중요성, 즉 소외된 이들의 삶의 의미를 재해석해 내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능력이 요청된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제기되어야만 할 것이다: 우리는 수많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사회 가운데서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를 어떻게 얻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소외된 이들과 주변화된 이들이 거꾸로 중심부에서 그들의 힘을 되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소외된 이들이 더 이상 중심부를 보편적인 것으로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수많은 주체들 중의 그저 단지 하나의 주체라고 여기며 상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에 너비는 어떠한 통찰을 제공해 줄 수 있을지를 살펴보

19) Andrew Leak, *Barthes: Mythologies* (London: Grant & Culture Ltd., 1994), 24-25.

20) Wendy Brown, 이승철 역, 『관용: 다문화제국의 새로운 통치전략』 (서울: 갈무리, 2010), 298.

면, 그는 기본적으로 예수 안에 나타난 계시를 우리의 뒤틀린 관계성을 영구적으로 변혁시키는 시작점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계시)은 예수가 “아버지”(어머니라고 불렀던 분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신성에 관한 우리의 자연스런 지식을 이루어내는 일이며 재구성하는 일이다... 계시는 우리의 종교적 생각들의 하나의 계발이 아니고 그것들의 계속적인 전환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심은 우리의 종교적 삶에서 영구적 혁명이며, 그 혁명에 의해 모든 종교적 진리들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변형되어지고, 모든 종교적 행위들은 회개와 새로운 믿음에 의해 변모되어진다.<sup>21)</sup>

니버는 예수 이야기가 우리 자신들의 삶에서 해석되어질 수 있고 계시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들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수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구체적 콘텍스트 안에서 해석해내는 일은 단지 우리의 정체성들과 실제적인 실천적 입장들이 예수의 삶의 방식에 의해 비판되어지고 재구성되어진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해석할 힘, 즉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행동을 해석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력 없이는, 우리는 창조주, 통치자, 그리고 구원자 하나님에 대하여 책임적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도 책임적일 수 없다.

니버의 해석에 관한 이해를 이어 받아서 ‘해석학적 실재주의’(hermeneutical realism)를 주장한 윌리엄 슈바이커(William Schweiker)의 경우, “급진적 해석이란 그것이 양심을 변혁시키고 생각과 마음을 뒤바꾸고 자아와 타

---

21) H. Richard Niebuhr, *The Meaning of Revelation* (New York: The MacMillan, 1941: 1970), 132-133.

자에 관한 돌봄과 존경을 서로 연결시키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기본적인 것”<sup>22)</sup>이라고 주장한다. 니버에게 있어서도 슈바이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의미의 근원으로서 존재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 삶의 통전성을 증대시키는 일이 신학적 윤리학의 과제이자 하나님의 명령이 된다. 세상의 가치와 힘의 구조를 전적으로 재평가해 낼 수 있는 해석의 능력을 슈바이커는 “힘의 재평가”(transvaluation of power)라는 표현으로 설명했다. 이러한 책임의 명령 구조는 니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의미의 근원으로 이해될 때 설명되어질 수 있다.<sup>23)</sup>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해석적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삶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이 역사 속 하나님의 행위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특별하고 가치 있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알려준다. 그러므로 니버에게 있어서 계시란 그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계시가 우리로 하여금 자신들과 타자들의 삶의 이야기를 해석해냄으로써 의미를 찾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관심하는 것은 계시적 순간이 그 자체의 빛에 의해서 빛나고 그 자체로서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그 순간이 다른 사건들을 조명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sup>24)</sup>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의존과 그 관계성은 자아를 존재 자체에 대한 신뢰로서의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낸다. 바로 이 주장을 통해서 니버는 권력 중심부에 놓여있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갖는 가치 있는 의미를 긍정할 수 있는 하나의 토대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 이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응답과 연관되어진다. 니버는 존재하는 것

22) William Schweiker, *Power, Value, and Conviction: Theological Ethics in the Postmodern Age* (Cleveland, Ohio: The Pilgrim Press, 1998), 92.

23) 위의 책, 34-36.

24) Niebuhr, *The Meaning of Revelation*, 80.

이라면 모두 다 자신을 존재하게 하고 타자 모두를 존재하게 만든 바로 그 근원적 행위로 인해 선한 존재들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그 근원적 행위에 책임적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신뢰로부터, 우리는 우리가 행해 온 모든 상대적 평가들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 평가들은 “선을 이루어가는 전체적인 과정 가운데에 적합한 것으로 변화되어질 것이고 ... 존재에게 선한 것, 보편적 존재에 선한 것, 또는 모든 실존의 중심이며 근원인 하나님에 대해 선한 것으로 변화되어질 것이다.”<sup>25)</sup> 다시 말해서 니버는 인간의 자기 의지의 빛에서 모든 존재의 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의 빛에서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주장하고 있다.

모든 존재의 가치를 긍정하는 이와 같은 이해는 소외된 이들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수많은 이야기들과 목소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간의 삶을 억누르는 어떠한 지배적 체제일지라도 그것에 저항하는데 토대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니버는 결코 무조건적으로 모든 이야기들의 의미를 긍정하지는 않는데, 그 이유는 그가 각각의 이야기와 절대 타자로서의 하나님과의 중요한 관계성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의 빛에서 모든 이야기들은 단지 긍정되어질 뿐만 아니라,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재평가되어진다. 포스트모던 사상이 각각의 이야기들이 갖는 개개의 의미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모든 존재의 선함에 대한 니버의 신뢰는 단지 개개의 이야기가 갖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의 전체로서 만들어내는 통전성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오타티가 지적하듯, 그 이유는 하나님이 타자와의 상호작용을 이끌어내는 창조적 의지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의 구조이기 때문이다.<sup>26)</sup>

---

25) Niebuhr, *The Responsible Self*, 125.

## V. 신 중심적 사고와 종교 다원적 상황

종교적 다원주의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다른 종교들과의 관계성 가운데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예수가 인간 구원을 위한 독특하고 최종적 답변이라는 기독교의 지배적 해석은 사실상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다른 문화와 종교들에 위치한 소위 타자들의 정체성보다 우월한 것으로 여기도록 만들어왔다. 역사적 예수가 하나님을 향한 유일한 길이라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보고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이상의 무엇인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기게 만들 수 있다. 예수에 관한 믿음을 부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관한 믿음이 갖는 다양하고 풍성한 의미를 스스로 제한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인간의 이해와 경험을 넘어서는 은혜의 영역이 획일적으로 재단될 수도 있다. 이러한 믿음이 가져오는 실제적 결과들은 다양하게 분석되어질 수 있겠지만, 그 중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점은 그 결과로 기독교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중 자기 자신들의 이야기, 즉 자기 자신들만의 구체적 삶의 콘텍스트를 버려둔 채로 현실을 떠나서 기독교 구원에 관한 종교적 공식에만 빠져들기도 했다는 사실이다. 예수의 이야기가 자신들의 삶의 이야기와 만나는 각각의 사건보다 예외가 없는 획일적인 종교적 해석이 보다 더 중요하게 되고만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원의 이야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어떻게 기쁜 소식, 소위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전통적 이해는 교회 내 신자들과 교회 밖 타자들을 구분해내는 분리를 양산해 왔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자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자 사이에 명백한 분리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 사실은 지배적 기독교 세계관이

26) Ottati, "God and Ourselves: The Witness of H. Richard Niebuhr," 346.

때로 차별과 배제의 논리구조에 기초해 오기도 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해의 구조 안에서는 어떤 다른 이야기도 하나의 계시를 가지고 있을 수 없으며, 허용될 수도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바울의 대표적 표현을 살펴본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우월성과 배타성을 강조하는 기독교적 이해가 아니라, 예수의 삶이 지향했던 삶의 방식, 즉 타자를 향한 연민과 무조건적인 환대를 의미함<sup>27)</sup>을 기억해야 한다.

지배적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비판에 직면했을 때, 니버는 다른 종교들과의 대화의 필요성을 설명해내는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그가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타자들 앞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가지고 있다는 삼각적 관계이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니버는 기독교 신학의 관점에서 이 사실을 설명하기 보다는 오히려 철학적 관점에서 사회적 실존으로서의 모든 인간은 도덕적 주체로서 살아감을 풀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의 이러한 시도는 우리 자신에게 일어난 행위들을 해석해 내고, 그 해석에 기초하여 보다 적합하고 보다 책임적인 응답하려는 실천이다. 그리고 이 구체적 행위가 단지 기독교의 사적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공적인 사회적 영역에서도 포함되어 일어나야만 하는 것임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다. 니버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다른 종교들과의 대화는 엄격하게 획일화된 구원의 공식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자유롭고 임의로 행하는 하나님의 실천, 즉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기초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니버의 삼각적 관계에 대한 이해는 지속적 대화의 필요성과 연관해서 설명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

27) 강남순, 『코즈모폴리타니즘과 종교: 21세기 영구적 평화를 찾아서』,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5), 136-139.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는 나와 관계한 타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섬김과 환대의 동기를 부여받는 응답하는 존재로 이해되어진다.

... 우리는 우리가 나와 당신 또는 나와 그것과의 지속적인 대화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단지 받아들이기 필요가 있다. 우리의 이해가 실패할 수도 있는 대화의 상황을, 또한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 대화의 상황을 벗어나려고만 하는 시도를 함으로써는 우리가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으며, 우리가 신뢰하는 것과 신뢰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는 것과 우리의 믿음 없음을 유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으며, 우리가 믿음과 인간의 관계, 믿음과 신들과의 관계,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그 대화를 오로지 지속할 수만 있으며, 그 한복판에서 타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이해하도록 노력할 수 있을 것이다...<sup>28)</sup>

기독교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궁극적 원인이며 절대 타자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모든 존재들과의 관계 가운데 존재함은 당연한 사실이다.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들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은 특별히 고통당하는 이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는 있다.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와 같은 이해는 모든 존재의 토대가 되는 하나님의 주권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의 삶의 콘텍스트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실천들을 발견해야만 할 것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의 임의성을 일반화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의 활동하심은 우리에게 책임적 해석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독특한 분이시고, 그 분은 이미지들에 관한 우리들의 일상적 어떠한 개념들을 통해서 포착되거나 이해되어질 수 없는 분”<sup>29)</sup>이라는 카우프만(Gordon Kaufman)

28) H. Richard Niebuhr, ed. Richard R. Niebuhr, *Faith on Earth: An Inquiry into the Structure of Human Faith*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1989), 30.

29) Gordon D. Kaufman, *The Theological Imagination: Constructing the Concept of God* (Philadelphia, Pennsylvania: The Westminster Press, 1981), 268.

의 기본적 주장은 일면 사실이지만, 그렇기에 다양한 해석과 이야기들이 허용되고 책임적으로 또한 의도적으로 뒤틀린 관계성의 회복을 향한 대화의 장으로 더욱 나아가야 한다. 예수가 특별한 시간과 삶의 상황 가운데로 성육한 것을 받아들인다면<sup>30)</sup>, 모든 존재를 사랑하시는 절대적 타자로서의 하나님 이해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다양하며 임의로운 실천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종교들과의 관계에 관한 하나의 대안적 관계성이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이나 인간 삶의 개선이란 과제 등 외적 차원으로만 빠져들 수도 있겠지만, 모든 존재들과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관한 니버의 이해는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고 하나님을 넘어서 우리 실존의 실제성을 파악하며, 신학적 사고들은 인간의 삶을 이끌어 낼 뿐만 아니라, 경험되어진 실재들을 참고하는 것”<sup>31)</sup>이란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니버는 하나님과 타자와 자아와의 삼각관계를 실제적인 서술적 방법으로 접근하면서 파악할 뿐만 아니라, 이 관계가 건강하게 이루어져야 할 규범적인 방향성이라고도 여기며 균형 잡힌 이해를 추구하고 있다. 니버의 신 중심적 세계관이 현 사회의 실제적 상황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관한 이해와 해석에 관심하는 한에 있어서, 그 세계관은 타자들의 종교적 정체성들의 상이함과 상관없이 그들을 품어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을 것이다. 타자들과의 지속적 대화의 결과를 쉽게 예단할 없이, 건강하고 정의로운 관계성을 이루어가는 과정<sup>32)</sup>을 지지

---

30) Sallie McFague, *Super, Natural Christians: How We Should Love Nature*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7), 14-16. McFague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물질세계로 침투해 들어온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과 모든 존재가 맺고 있는 관계성의 기초이며, 존재들 간에 ‘주체와 주체들 간의 만남’이란 상호관계성의 기초로 이해되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성육하신 터가 되는 자연을 각각 주체로 받아들이며 그 타자들에게 적절하게 응답하는 힘이 바로 영성이 된다.

31) Ottati, “God and Ourselves: The Witness of H. Richard Niebuhr,” 348.

32) 정주진, 『평화를 보는 눈: 폭력 없는 세상은 가능할까』 (고양: 개마고원, 2015), 66-67.

하는 이해의 틀로서 니버의 삼각적 관계 이해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평가한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니버가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제도적 사회로서 사회 정치 경제적 측면들 가운데 무엇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읽어낼 수 있는 적절한 방법론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비판적 질문이다. 이러한 질문을 제기하는 이유는 도덕적 실존으로서 인간이 살고 있는 제도적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과학과의 간학문적 사회 분석이 필수적으로 요청되기 때문이다. 또한 그렇지 않고 종교적 신학적 통찰들이나 철학적 분석의 틀만을 사용할 경우에 ‘해석학적 임의성’(hermeneutical arbitrariness)으로 빠져들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과학적 분석의 도움 없이 현실을 임의적으로 해석하고, 그에 따라 책임적 실천의 방향성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나가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 VI. 나가는 말: 책임 있는 해석을 통한 지속적인 자기 비판과 자기 교정

본고에서는 리차드 니버의 윤리사상이 현재 사회 속에서 소위 포스트모던 사상들과 적절하게 대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지점들이 어떻게 발견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필자는 니버의 윤리사상과 포스트모던 사상이 만날 수 있는 네 가지 가능한 지점을 제안하였다. 첫째, 포스트모던 사상이 말하는 상호보완이론에 근거한 상호연관성에 대한 관심이 자아, 타자, 궁극적 원인으로서의 하나님 사이의 관계성

---

정의로운 관계성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평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는 개별적 관계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관계의 토대가 요청되어진다. 그 이유는 관계의 질이 향상되는 근거가 공동체적 삶이며, 바로 이 공동체적 삶에 누구나가 참여하는 것이 정의로운 평화의 관계성을 이루어가는 핵심 중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을 삼각적 이해구도로 파악한 니버의 이해와 긴밀히 연결되어질 수 있다. 포스트모던 사상과 니버의 삼각적 관계 이해 구도가 서로 만나는 공통지점은 간주체성에 대한 이해이다. 여기서 니버가 포스트모던 사상과 대별되는 지점은 간주체성이 절대적 타자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의해 비판적으로 점검되어지지 않는다면, 또한 간주체성에 대한 이해도 어느 순간 제도적 사회 속에서 왜곡되어진 대상화의 관계 속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니버가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기존 체제, 즉 이미 확립되어진 것들에 대한 급진적 비판은 니버의 사상과 포스트모던 사상에 모두에게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이러한 비판적 힘은 다양한 억압적 기제들을 파괴하는 해체적 힘이란 경향성을 갖지만, 니버는 절대적 존재로서의 하나님 이해가 단지 해체적 비판력으로만 남기보다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와 같은 관계성을 하나로 연합시켜낼 구성적 힘으로 이해할 실마리를 제공한다. 비판적 힘과 새로운 구성적 힘이 절대 타자로서 존재들의 근거가 되는 관계성을 제공하는 하나님 이해에서 서로 공통의 영역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한다.

셋째, 급진적 비판력은 현재 사회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해석의 힘과 다양한 삶의 이야기들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속에 기초하게 되며, 이 두 가지 기초들은 니버의 사상과 포스트모던 사상 모두가 다원성을 긍정하고 억압적 이데올로기의 논리구조를 파헤쳐 드러내는 일에 중요한 토대가 된다. 니버에게 있어서 전체주의를 대표하는 하나의 거대 담론은 다양한 이야기 구조들로 대치되어질 가능성을 보이는데, 그 이유는 니버가 인간의 실존을 책임적 자아로 여기면서 하나님님의 자기계시 앞에서 삶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의미 있게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긍정하기 때문이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해석은 예수에 관한 교리에 근거하지 않고, 예수의 삶의 방식에 그 근원을 둔다. 니버에

따르면, 인간은 예수의 삶의 방식과 그 이야기와 더불어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해석할 가능성을 갖게 된다. 니버는 다양한 삶의 이야기들 각각의 의미를 인정하면서도 그것들을 하나의 유기적 전체로서 파악하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타자와의 상호 작용을 이끌어내시는 창조적 의지이시면서 뿐만 아니라 존재들의 구조 자체이시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 인간의 죄성과 집단적 이기성에 대한 이해를 놓쳐서는 안되겠지만, 리차드 니버에게 있어서 하나님 존재 자체가 가치의 근거가 되며, 그 하나님이 다른 존재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근거가 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넷째, 신중심적 사고에 기반하여, 하나님의 자기계시는 종교적 다원주의 시대상황 가운데서 재해석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포스트모던 사상이 특별히 하나님의 다른 이름들이나 인간의 삶의 방향을 정향시키는 하나님의 역할에 관심하였다면, 니버는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자유롭고 임의로우신 활동에 관한 믿음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니버는 현 사회의 실상, 즉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으로 되돌아오며, 그 후에 니버는 이를 바탕으로 종교 간 대화의 필요성을 모든 존재와의 맺어진 하나님의 급진적 관계성에 기반하여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덧붙여서 필자는 니버의 사상이 사회 현실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가진 반면에 그 현실을 읽어낼 사회과학적 분석의 방법론과 적극적으로 대화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신학적 통찰에만 근거한 현실 이해가 혹 또 다른 뒤튼린 사회적 관계를 이끌어내는 일에 오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문제점은 '해석학적 임의성'이란 말로 특징지어질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니버의 윤리사상과 포스트모던 사상의 접점을 찾는 일에 있어서 '해석적 능력'을 그 중심 개념으로 이해하려 한다. 이러한

시도는 니버의 윤리사상이 현 시대 가운데서도 유효한 이유를 그가 말하는 하나님의 모든 존재와 맺고 계시는 급진적 관계성과 그 지속성에서 찾게 만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존재들과 맺고 있는 관계성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하고 그에 따라 책임적 실천을 지속적으로 이어나 가려는 시도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실천 과제들을 역사 속의 하나님의 의도성과 조화를 추구하면서 그 과정을 비판함으로써 점검하고, 동기를 불러일으키고, 또한 필요하다면 수정해 내도록 이끌 것이다. 이러한 자기 비판과 자기 교정의 과정은 니버의 윤리사상과 포스트모던 사상이 맞닿을 수 있는 지점을 다양하게 찾아보려는 시도가 목표하고자 하는 지향점이며, 일종의 ‘지속적인 메타노이아’(ongoing *metanoia*)의 과정이라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남순. 『코즈모폴리타니즘과 종교: 21세기 영구적 평화를 찾아서』. 서울: 새물결 플러스, 2015.
- 구승희. 『에코필로소피』. 서울: 새길, 1995.
- 박충구. 『한국사회와 기독교윤리』. 서울: 성서연구사, 1995.
- 정주진. 『평화를 보는 눈: 폭력 없는 세상은 가능할까』. 고양: 개마고원, 2015.
- Brown, Wendy/ 이승철 역. 『관용: 다문화제국의 새로운 통치전략』. 서울: 갈무리, 2010.
- Butler, Judith/ 양효실 역. 『윤리적 폭력비판: 자기 자신을 설명하기』. 고양: 인간사랑, 2013.
- Anderson, Walter Truett, ed. *The Truth about the Truth: De-confusing and Re-constructing the Postmodern World*. New York: Penguin Putnam, 1995.
- Birch, Bruce C. and Rasmussen, Larry L. *Bible & Ethics in the Christian Life*. 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1989.
- Gebara, Ivone. *Out of Depths: Womens' Experience of Evil and Salvation*.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2.
- Gunter, Wolfgang. "Postmodernism." *International Review of Mission* 86, no. 343 (1997): 425-431.
- Kaufman, Gordon D. *The Theological Imagination: Constructing the Concept of God*. Philadelphia, Pennsylvania: The Westminster Press, 1981.
- Leak, Andrew. *Barthes: Mythologies*. London: Grant & Cutler Ltd, 1994.
- Levinas, Emmanuel. *Otherwise Than Being or Beyond Essence*. trans. Alphonso Lingis, Hingman, M. A.: Kluwer Boston, 1981.
- McFague, Sallie. *Super, Natural Christians: How We Should Love Nature*.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7.
- Niebuhr, H. Richard. *The Meaning of Revelation*. New York: The MacMillan, 1941: 1970.
- \_\_\_\_\_. *Radical Monotheism and Western Culture*.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s/John Knox Press, 1960.

\_\_\_\_\_. *The Responsible Self: An Essay in Christian Moral Philosophy*.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63.

\_\_\_\_\_. *Faith on Earth: An Inquiry into the Structure of Human Faith*. ed. Richard R. Niebuhr.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1989.

\_\_\_\_\_. "The Kingdom of God and Eschatology in the Social Gospel and in Barthianism." In *Theology, History, and Culture*. ed. William Stacy Johnson, 117-122.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1996.

Ottati, Douglas F. "God and ourselves: The witness of H. Richard Niebuhr." *Christian Century* (2 April 1997): 346-348.

Schweiker, William. *Power, Value, and Conviction: Theological Ethics in the Postmodern Age*. Cleveland, Ohio: The Pilgrim Press, 1998.

논문투고일: 2016년 06월 30일

심사개시일: 2016년 07월 08일

게재확정일: 2016년 08월 05일

---

 • 국 문 초 록 •
 

---

급변하는 사회 가운데서 기독교인의 사회적 실존 뿐 아니라 인간의 도덕적 실존은 어떻게 타당하게 이해되고 설명될 수 있을지 질문해 본다. 이와 관련하여 어떻게 기독교 신학 체계뿐만 아니라 도덕 철학의 전통을 함께 사용하면서 답할 수 있을지 관심하게 된다. 절대타자인 하나님을 존재의 근거로 여기면서 자아와 타자와의 관계성을 풀어나가는 리차드 니버의 해석이 포스트모던 시대의 개체에 대한 존중과 연관성에 대한 이해와 맞닿을 수도 있을 것이다. 니버의 윤리사상은 기독교 신학의 인간과 역사 이해를 넘어서서 포스트모던 사상과 만나 대화할 가능성을 제공하며, 또한 비판적 관점을 다음과 같이 제공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첫째, 니버의 사상은 책임적 응답이라는 관점을 포스트모던 사상이 말하는 상호보완성에 기초한 연관성에서도 놓치지 않고 있다. 둘째, 철저한 유일신론은 그에게서 존재 그 자체의 원칙이며, 보다 포괄적 공동체를 지향하도록 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이 말하는 개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인정하더라도, 니버는 포괄적 관계구조의 이해 가운데서 개체의 실천들을 비판하는 관점을 궁극적 원인이자 절대적 존재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빛 가운데서 제공한다. 셋째, 니버에게 있어서 계시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계시가 우리로 하여금 타자들의 이야기를 해석해 내어 의미를 찾도록 돕는다. 넷째, 니버의 신중심적 사고의 특징은 역사 속에서 자유롭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활동과 전적인 주권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 기초 위에서 종교 간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이다. 결과 보다는 대화의 지속성이 우선이다.

니버의 윤리사상이 갖는 특징들이 포스트모던 시대 상황 가운데서 실제로 유효하려면, 그의 주장대로 책임 있는 해석을 통한 끊임없는 자기 비판과 자기 교정의 과정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포스트모더니즘, 리차드 니버, 책임 있는 해석, 신중심적 사고, 상호연관성, 철저한 유일신론

---